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월드랭킹 1위

세계실내선수권 金 · 세계선수권 銀 등 성과 꾸준
최근 1년간 성적으로 정하는 월드랭킹서 '선두'

올해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스마일 점퍼' 우상혁(26 · 국군체육부대)이 세계육상연맹의 각 세부종목 월드랭킹에서 남자 높이뛰기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우상혁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최근 12개월 간의 성적으로 정하는 월드랭킹에서 1위를 꿰찼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각 세부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다.

7월 26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에서 우상혁은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로 점프했다.

세계육상연맹은 기록 순위와 월드랭킹을 따로 집계한다.

우상혁은 지난달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가 2m37을 뛰어넘으면서 실외 기록 순위에서는 2위로 밀렸다. 지난 2월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실내 대회에서 2m36을 넘어 2022시즌 실 · 내외 통합 순위에서 1위를 달리던 우상혁은 이 자리도 바심에 내줬다.

하지만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며 눈부신 성과를 낸 우상혁은 월드랭킹에서는 1위에 등극했다.

월드랭킹은 최근 약 12개월 동안의 각 대회 기록, 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정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남자 높이뛰기는 최근 약 12개월 동안 치른 대회 중 해당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경기 평균 점수로 월드랭킹을 정한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하면서 지난해 8월초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 기록은 월드랭킹 산정에서 제외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바심과 공동 1위에 오른 탬베리는 1592점을 따냈다.

우상혁이 2m35로 도쿄올림픽 4위에 올라 얻은 점수는 1474점이었다.

도쿄올림픽 결과를 포함해 정한 지난달 11일 기준 월드랭킹에서 탬베리가 평균 1404점으로 1위, 우상혁이 평균 1376점으로 2위였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결과를 제외하고, 지난달 26일 끝난 2022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를 랭킹 포인트에 포함하면서 우상혁이 탬베리를 제쳤다.

우상혁의 랭킹 포인트 산정에 포함된 5개 경기 성적은 2022 실외 세계선수권 결선 2위(2m35 · 1534점), 예선 1위(2m28 · 1261점)와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1위(2m33 · 1406점), 세계실내선수권대회 1위(2m34 · 1415점), 반스카 비스트라차 실내 대회 1위(2m35 · 1324점)다. 이를 통해 우상혁은 평균 1388점을 얻었다.

탬베리가 최근 12개월 동안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경기 평균 점수는 1377점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심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전한 대회가 3개에 불과해 월드랭킹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4위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우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우승,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등의 성과를 내며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자리매김했다. /뉴시스

우상혁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낸 후 메달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상혁은 결선에서 2m35를 넘어 한국 육상 높이뛰기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2m37을 넘은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이 차지해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태권도진흥재단 폭염대비
현장 근무자에 예방키트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오응환 이사장; 이하 재단)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에서도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폭염예방키트를 지원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던 지난달, 재단 이웅재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시설관리부 부서원들은 폭염취약 직군인 야외 조경 미화 근로자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온열질환 예방키트 120여명에게 지급했다.

땀을 내리고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아이스패치 및 쿨 타올 등으로 구성된 키트 뿐 아니라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현장 관리자를 통해 수시로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휴식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시간과 업무강도 조정 등 현장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데 적극 나섰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은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시기에 특히 현장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근무자들의 건강관리가 태권도원 안전에 기본인 만큼 올 여름 폭염, 장마 등 만전을 기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장애인 탁구 백영복
태국 오픈 국제대회서 男단식 金

장수군장애인체육회(군수 최훈식)는 국제탁구연맹(ITTF)과 태국 장애인스포츠협회가 개최한 '2022 태국 오픈 국제대회에 백영복 선수가 남자단식 1위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대회는 장수군 장애인탁구선수단이 국가대표 랭킹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참가한 대회이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탁구선수단이 2022년 장애인탁구 세계선수권대회의 쿼터, 포인트 점수를 획득하고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및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획득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 및 장수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께 큰 기쁨 선사할 것"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보은장사 씨름대회' 출전… 3일까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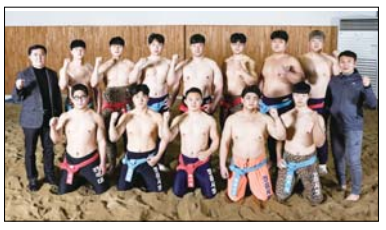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리는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 씨름대회'에 출전한다.

지난달 열린 '평창장사 씨름대회'에서 한라급 한창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2위를 기록하며 쾌조의 성적을 거둔 씨름단은 기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는 장사 배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경기에는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를 중심으로 태백급(80kg 이하) 3명(정찬우, 박상준, 김성하), 금강급(90kg 이하) 4명(강성인, 유혁, 배경진, 정석진), 한라급(105kg 이하) 3명(김기환, 이승욱, 한창수), 백두급(140kg 이하) 2명(김병찬, 박준규) 총 1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이번 경기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다.

김시영 감독은 "정읍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멋진 경기를 펼쳐 정읍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큰 기쁨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일까지 5일간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MBC sports+와 유튜브 채널 '살바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전북체육회, 초 · 중학생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청소년 스포츠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론과 체험수업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안전교실에서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안전의식 변화,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컬링과 빙상 종목에 대한 체험이 이뤄졌다.

이틀에 걸쳐 진행 된 이번 교육에는 1회당 80명씩 총 160명의 도내 초 · 중학생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컬링과 빙상 종목을 배우고 직접 체험도 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도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안전캠프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은성기자